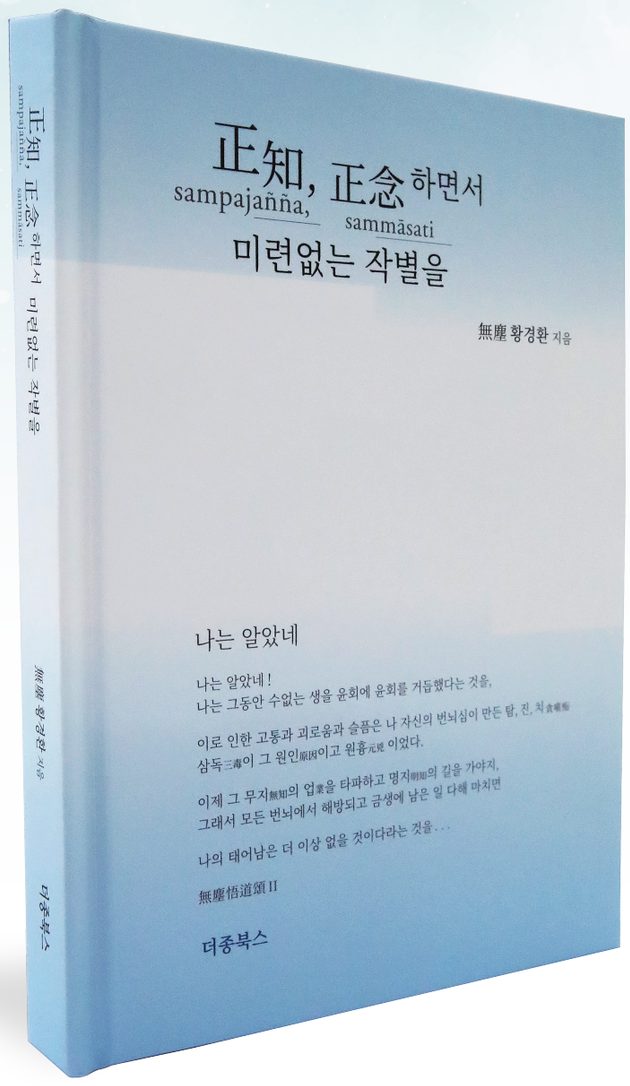
황경환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의 깨달음 여정에서 남긴 '108시집'

正知, 正念 하면서 sampajañña, sammāsati 미련없는 작별을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그동안 수없는 생을 윤회에 윤회를 거듭했다는 것을,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나 자신의 번뇌심이 만든
탐, 진, 치貪瞋痴 삼독三毒이
그 원인原因이고 원흉元兇이었다.

이제 그 무지無知의 업業을 타파하고 명지明知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고 금생에 남은 일 다해 마치면

나의 태어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無塵悟道頌 II

無塵 황경환 지음 | 더종북스 | 175쪽 | 값 15,000원

인간의 몸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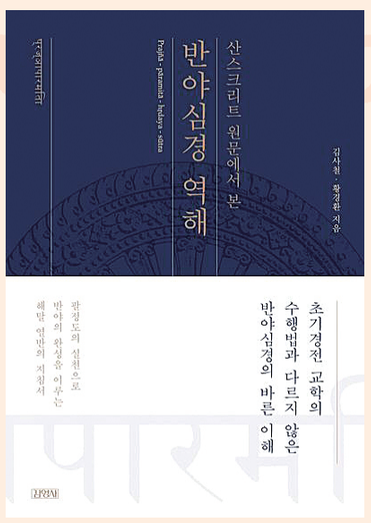
뒤돌아보고 되돌아보아도 세상이란 대도량(大道場)에
인간의 몸을 받아 왔다가 가는 길에 오직 의미 있는 일 하나, 그것은 담마의 법法 Dhamma를 만나 그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익히고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이고, 미래의 비전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 본문 중에서



황경환 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수행자이자 사업가이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하였고, 현재 동국대 명예 철학박사이며 동국대 불교대학 석좌교수이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국제 민간 외교단체) 한국본부 총재직 및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PTP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며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2009),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2020, 공저)가 있다.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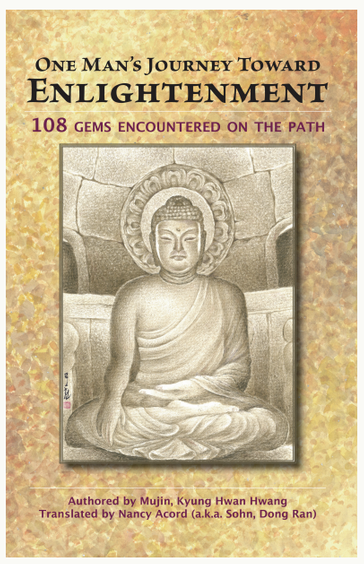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해설이 난무하는 《반야심경》
왜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할까?

《반야심경》이 어려운 이유는 한문 자체의 난해함과 한역의 부정확성 때문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며,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반야심경》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명상 수행과 이를 통한 완전한 깨달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참신한 시각에서, 초기 경전의 다양한 경문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란 계·정·혜 삼학, 즉 팔정도의 실천과 완성임을 명쾌하게 밝힌다.

김사철·환경환 지음 | 김영사 | 272쪽 | 15,800원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

근본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핵심 대의에서부터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불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저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 온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영원한 자유의 길을 펼쳐 보인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판 발행, 아마존에서 페이퍼백, 전자책, 오디오북 발매중!

책 주문처 · 사)21세기불교포럼 경주시 알천북로 345 | 사무국장: 최진홍 010-9210-2959, 회계과장: 임정은 010-8562-7312